



연예&TV

STAR FOCUS



미국 진출 준비를 위해 3년의 공백을 가졌던 임정희는 "미국시장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미국진출 꿈 포기 아닌 ~ing”

한국 더 알아야美 팜푸드 실수 있어 연령·장르 떠나 이젠 걸그룹과 경쟁

김현경 기자 gymmy@donga.com

‘거리의 디바’ 임정희가 30일 미니앨범 ‘진짜일리 없어’를 발표하고 3년 만에 가요계로 돌아온다.

그녀는 2007년 9월 3집 발표 이후 미국 진출을 위해 국내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해 6월 2년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번 음반 작업을 해왔다.

2007년 3집 타이틀곡 ‘사랑에 미치면’에 미국 유명 힙합 듀오 아웃캐스트가 래퍼로 참여했고 미국에서 발표할 음반도 프로듀서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그녀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국 진출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서운하다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팝의 본고장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고, 훌륭한 뮤지션들을 직접 체험했

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걸 잠시 접어야 한다는 것이 아쉽죠. 미국 음반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형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임정희의 미국 음반 발표는 마침 터진 금융위기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졌다. 미국 현지의 유망한 신인도 음반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낯선 가수에게 선풍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는 없었다.

“아시아 뮤지션의 실력이 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 배우들은 이미 할리우드에서 활발히 활동하잖아요. 미국 음반사들은 아시아 뮤지션이 미국에서 팝 음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음반 제작을 쉽사리 결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도 임정희는 한국인 특유의 투지와 끈기만은 인정받았다고 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연습하는 모습을 미국 친구들이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인식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해요. 그래

서 아시아 뮤지션들이 거부감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합니다.”

3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임정희는 아이돌 그룹이 가요계의 절대 권력이 됐고, 가요계 전통 장르인 발라드가 ‘특수 장르’가 돼버린 생경한 풍경에 놀라있다.

“3년 전에도 걸그룹이 있었지만,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실력도 모두 뛰어나고, 연령과 장르를 떠나 그룹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웃음)”

임정희는 15일 온라인에 먼저 공개한 수록곡 ‘헤어지러 가는 길’은 내이비뮤직, 소리바다 등에서 부에니엘의 ‘캔트 노바디’를 제치고 1위에 올라 여전한 인기를 과시했다.

타이틀곡 ‘진짜일리 없어’는 방시혁이 영화 ‘인센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곡으로, 내오음 사운드에 일렉트로닉 신시사이저를 곁들였다.

“박진영 프로듀서가 장문의 메일로 격려와 축하를 해주셨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많은 공연으로 팬들을 만나고 싶어요.”

웅장하고 호탕한 동편제 소리 들어보소

이 스타데이 / 구례동편제소리축제



영화, 뮤지컬을 통해 판소리 ‘서편제’는 꽤 친숙하다. 하지만 판소리는 서편제만 있는 게 아니다. 동편제가 있고, 또 중고제가 있다.

우리나라 판소리는 크게 세 유파로 나뉜다. 이중 동편제(사진)는 전남 구례의 동쪽지역 명창들에 의해 불리며 구례, 남원, 순창, 고창 등에서 성행했다.

‘가람’ 송홍록이 발전시켜 ‘국창’ 송만갑이 완성시켰는데, 구성지고 애절한 ‘서편제’와 달리 웅장하면서도 호탕한 소리가 특징이다.

전남 구례군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구례동편제소리축제’를 개최한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구례군 서서천면 일대에서 열린다. 첫날인 8일에는 송우룡, 송만갑, 유성준, 박봉래, 박봉술로 이어지는 동편제 명창들의 3m 대형 인형과 길놀이패가 참여하는 판소리 가장행렬, 중요무형문화재인 ‘향제줄풍류’, 동편제 명창 추모제, 인간문화재 성창순의 판소리 등 개막 축하공연이 열린다.

9일의 하이라이트는 송순성 명창과 제자들이 연창하는 ‘박봉술

제 수궁가’ 4시간 완창과 창극 ‘산수유’ 초연.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유순자 명인의 ‘부포춤’ 볼 수 있는 ‘유순자 부포놀이’, 전국 다문 화가정 소리자랑, 실내악단 도드리 공연, 판소리대회 ‘축창’ 등이 마련된다. 축제기간 중에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곁들여진다. 화엄사, 천은사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운치 있는 팔각정 특설무대에서 전문 소리꾼에게 소리를 배우는 ‘배워봅시다’ 체험행사, 섬진강 모래톱에서 진행되는 ‘강의 소리’ 등 관객의 흥을 돋운다. 이밖에도 구례 동편제학술세미나 ‘송만갑의 예술세계’, 단가백일장, 밤새워 새벽까지 열리는 ‘소리난장’, 판소리와 함께 하는 자정계 여행도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시각장애인 위한 화면해설방송 KBS 02) 781-1800 MBC 02) 780-0015 SBS 02) 2113-5000 OBS 032) 670-5000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channels (KBS 1, 2, MBC, SBS, OBS, 지역민방) and program schedules. Includes a '여성동아' section for SBS.

스카이라이프 1588-3002,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02-735-6511

Table with columns for program categories: 뉴스·경제, 영화, 드라마, 오락·음악, 스포츠·레저, 다큐·교양, 만화·게임, 생활, and WEATHER.

Ranking News table with columns: 순위, 곡명, 아티스트, 앨범명. Lists songs like 'Go Away' by 2NE1.

오늘의 날씨 9월 29일 (음력 8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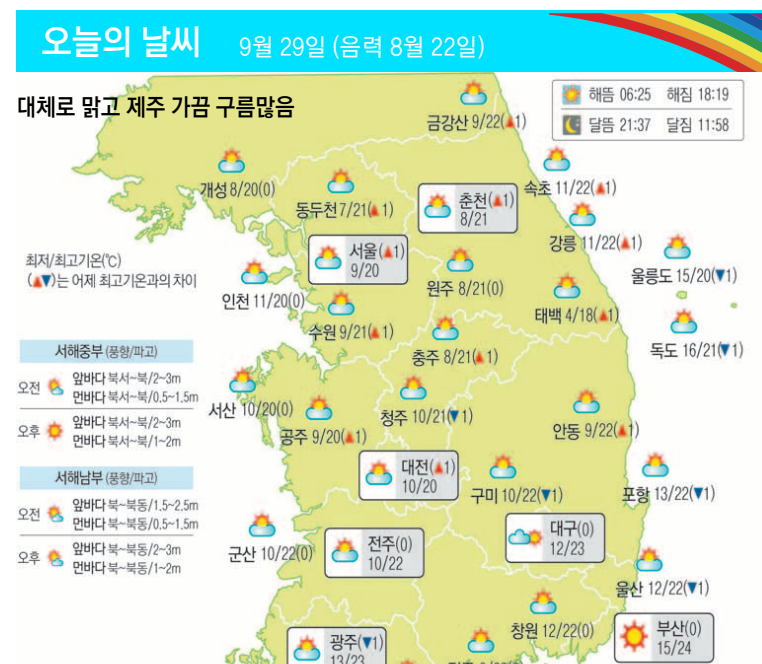


Table with columns: 비율확률, 지역날씨, and WEATHER. Includes a small weather forecast table.